춘향제 부당요금 원천 봉쇄

남원시, 투명한 먹거리 시스템 강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제94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당요금 근절 결의를 다지며 부당요금 원천 봉쇄에 나섰다.

남원시가 제94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당요금 근절 결의를 다지며 부당요금 원천 봉쇄에 나섰다.

남원시는 5월 10일~16일까지 열리는 춘향제 바가지요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남원춘향제 기간 각각의 먹거리 존에 키오스크를 활용해 투명한 먹거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민원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을 통한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회원 200여명은 18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위생·친절서비스 향상 및 부당요금 근절 결의대회를 펼쳐, 친절서비스YES, 착한가격YES, 부당요금NO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마음으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를 기원하였다. 한편 김보상 보건지원과장은 "현재 남원시에서는 착한 가격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외식업·숙박업·소상공인들의 부당요금 근절 동참을 유도하고 대시민 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당요금 없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재활용품 수거 교환사업 연중 추진

임실군, 다 쓴 종이팩 · 폐건전지 등 화장지 · 새 건전지로 교환

임실군이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 환경실천운동을 통한 환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화장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품 수거 교환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교환 기준은 품목별로 △종이팩 1,000ml 5개, 500ml 10개, 200ml 20개 △폐건전지 10개 △아이스팩 5개 △상패 2개를 모아오면 화장지 또는 새 건전지 1개로 교환 가능하다.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헹군 뒤 펼쳐 건조하고, 아이스팩은 세척 후 말린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가져가면 된다.

특히, 상패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플라스틱, 목재, 금속)을 원료로 하여 만든 상패에 한해 교환이 가능하다.

우유, 주스, 두유 등의 종이팩은 수입에 의존하는 최고급 천연펄프를 사용해 제작된 우수한 자원이다.

고급 화장지 및 미용 티슈로 재탄생될 수 있는데도 폐지류와 함께 섞여 배출되는 탓에 배출되는 양의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다.

또한, 다 쓴 건전지 속에는 수은, 니켈, 카드뮴 등 많은 화학물질이 남아 있어서 토양에 버려지면 부식되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나 재활용하면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심 민 군수는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상패 등의 올바른 배출이 환경오염 예방과 중요자원 회수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농기센터, 드론용 비산 저감 AI 시범 시연회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2024년 신기술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드론용 비산저감 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사업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이 기술은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절감은 물론 농약 비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된 비산 저감 AI 노즐 및 분무 장치는 농업분야에서의 정밀한 농약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을 크게 줄이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농약을 정확히 살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농작물 보호는 물론 작업자의 안전도 향상시킬 수 있다.

시연회는 농업 현장에서 직접 드론을 조종하여,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시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농민들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은 기술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높이 평가

하였으며, 신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정인 농촌진흥과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드론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향후 더 많은 농가에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누리시민 가맹정 모집

남원시가 남원누리시민 제도 운영을 위한 가맹점을 모집하며, 대상 업체는 현재 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하고 모집은 연중 진행한다.

가맹업체로 등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가맹점 홍보, 인증 현판 제공, 가맹점 판매상품 이벤트 상품으로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남원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예산 소진 시 까지) 이벤트도 시행할 예정이다.

가맹점 지정 시 남원누리시민이 방문했을 경우 숙박료 할인, 물품구매·체험료 할인, 사은품 제공, 음식·음료 할인 또는 무료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가맹점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적정성 여부 등 심사 후 선정하게 된다.

한편, 남원시는 현재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생활인구 정책알림 서비스 제공 등 생활인구 20만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지역정착 위한 외국인 비자 설명회 개최

지역내 기업 대상, 지역특화비자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등 설명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특화형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착을 위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한국씨엔티(주) 등 10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소개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 설명 △질의응답 및 기타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순창군이 지역특화형비자(F-2-R) 지역 우수인재 외국인을 모집 중인 가운데, 비자 제도의 취지와 접수방법,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숙련기능인력비자(E-7-4) 추천제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특화형비자(F-2-R)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며 근로 활동을 하는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에게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여 지역 사회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로, 현재 군은 2024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우수 외국인 27명을 배정받아 모집중에 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비자(E-7-4) 추천제는 장기간 국내에서 근무하며 숙련도를 축적한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비자를 숙련 기능 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산업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설명회는 순창군이 직면한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지역사회에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이러한 국제 인재의 유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오피스 행정 사무원 양성 과정 개강

임실군과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오피스 행정사무원' 양성 과정 개강식을 지난 17일 개최하고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 15명의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및 사회 초년생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갖추고자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본 과정은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활용, 자기소개서 작성법, 직업마인드 향상 등 취업에 필요한 기초과정을 배워 자격증 취득과 일자리 연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구인을 원하는 임실군 관내 기업과 연계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며 평일 9시부터 13시까지 임실군청 5층 주민정보화교육장에서 이루어진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객토 공급사업 추진

순창군이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객토 공급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객토'란 토양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가져온 양질의 흙을 의미하며,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이나 자연적 요인으로 피폐해진 토양을 복구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팔덕면 월곡리 산 137-1번지 일원 군도 11호선(월곡~광안) 선형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해당 과정에서 확보된 객토가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 2월 지목이 답인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22가구, 28필지를 최종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들에게는 필요한 객토 운반 및 땅을 평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총 1억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